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김지영* · 이형실**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The Effects of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elf-Esteem

Kim, Ji Young* · Lee, Hyong-Sil**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Prof.,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elf-esteem.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563 students of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who reside in Bucheon, Geonggi-Do and 532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in self-esteem. Second, adolescents' self-esteem were associated with relationship with parents, parental supervision, interparental conflict, friendship quality and peer victimization. Male adolescents' self-esteem was affected by peer victimization, relationship with parents, friendship quality. Female adolescents' self-esteem was affected by relationship with parents, friendship quality and peer victimization.

Key Words: 청소년(Adolescents), 자아존중감(Self-esteem), 부모와의 관계(Relationships with Parents), 부모감독(Parental Supervision), 부부갈등(Interparental Conflict), 또래관계(Friendship Quality), 또래괴롭힘(Peer Victimization)

I. 서론

자아존중감은 인생의 전 시기를 통해 형성되고 발달하는 것으로 자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활발해지는 청소년기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개인의 행동양식과 향후 장래에 미치는 영향력이 삶의 어느 시기보다 크므로 이 시기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 초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예민해지고 불안정해질 수 있는 시기로서 초기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이해와 수용의 태도를 갖는 것은 이후의 부적응을 예방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스스로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 특성을 보이며, 삶 자체를 훨씬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 반면에 청소년기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증 같은 심리적 불안정, 일탈행동, 자살 등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연결되며, 이후의 삶과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의 바람직한 발달과 적응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행해져 왔다. 그러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아직 폭넓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특히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가족, 또래집단, 학교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가족 환경은 자녀의 심리적·정서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자아존중감과도 높은 상관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임병희, 1996). Demo, Small과 Salvin-Williams(1987)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가족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이다(Coopersmith, 1981). 청소년의 자아평가의 주요 근원은 가족이며, 특히 부모는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

및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의 부모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녀에게 자유를 허용하고, 따뜻하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Coorsersmith, 1981; 정익중, 2007, 재인용). 반면에 자녀를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부모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을 저해한다. Rosenberg(1965)는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 감독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갈등도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자녀가 부모의 갈등을 높게 인지할 경우 자아존중감은 낮았다(정익중, 2007).

청소년기에는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욕구가 강해지면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래집단에 더 몰입함으로써 친구가 중요한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된다(최정미·김미란, 2003). 청소년기 친구 변인과 자아존중감 발달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이미리, 2005; 최정미·김미란, 2003)에 의하면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다. 친구관계는 청소년의 유능성 동기를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자아기능의 효율성을 강화하고(Harter, 1982),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Vandell & Hembree, 1994). 또한 자신의 친구관계를 만족스럽게 평가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인다(Berndt, 1992, 1996).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며 또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청소년기에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은 환경 적응 및 건전한 인성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는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초래한다(최미경·도현심, 2000). 또래 괴롭힘 피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김희화, 2002; 도현심·김선미, 2006) 또래괴롭힘을 당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단일 요인과의 상관성 연구이며 청소년과 밀접한 여러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가족 및 또래 환경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남정홍, 2001; 노 선, 2003)가 있는 반면,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김춘래, 1992; 이해숙, 1998)도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국길숙·이미숙, 2003; 김옥숙, 2001; 김은주, 2002; 이희자·김경원, 2000)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일관된 연구 결과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가족요인과 또래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및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부모나 교사가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요인인 부모와의 관계, 부모 감독, 부부 갈등, 또래 요인인 친구관계의 질, 또래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족요인과 또래요인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Rosenberg(1965)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경과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서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다고 보는 개인적 가치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뜻하며,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

로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표현을 잘하고, 자기 확신, 인내, 잠재적인 지도력, 사회적인 기술 등의 특성을 지닌다(윤정혜, 1992). 또한 자신을 과장 또는 부정하지 않으며 독립적·자주적으로 생각하고 솔선성이 강한 편이며,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친절하고 호의적이다(강승규, 1994). 이러한 청소년은 긍정적이고 쾌활한 정서 상태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김애경, 2001),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도덕적인 사고가 발달해 있고 창의적이다(김희화·김경연, 2000; 현희순·김양순, 1999). 또한 주위의 유혹에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며(김희화, 2002; 이경남, 2002) 성취동기 수준이 높고(홍성흔·도현심, 2002) 자신감이 있다(강기정·정은미, 2003).

반면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낮은 성취수준을 보이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능이 부족한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원했던 성공이나 더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며 사회적 고립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자기가치에 대하여 회의적이며 자기를 무가치한 인물로 보며 자주 불안을 느끼고 우울해 하며 불행스럽게 느낀다. 또한 우울증, 학교생활부적응, 집단괴롭힘, 비행, 폭력, 약물남용 등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양중국·김충기, 2002; 최은영·최인령, 2002). 특히 청소년의 비행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 변인들로 자아존중감이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다(강석기, 2003).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관련 요인

1)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심리적 발달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녀는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신뢰감, 애착, 동일시, 사회화,

성역할,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등을 발달시키게 된다(박영림·최혜림, 2002). 자녀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Gecas, 1972).

부모가 애정적인 양육을 하고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아동 및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김애경, 2003). 부모가 지지적이고 따뜻하며 자녀에게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청소년은 자신이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부모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Openshaw, Thomas, & Rollins, 1983).

부모의 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들을 보면, Coopersmith(1967)는 부모가 수용적일 때 청소년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적합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며, Thomas(1972)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방임적, 비판적인 부모의 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유연·박성연, 2001; 강석기, 2003, 재인용).

2) 부모 감독

부모 감독이란 자녀의 친구들이 누구인지, 자녀가 어디를 다니는지,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부모의 인지도(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 Dishion과 McMahon(1998)은 부모 감독을 부모가 자녀의 행방에 대해 아는 것이며, 자녀의 적응에 관심을 두고 자녀의 행동을 추적하는 부모 양육 행동과 연관된 하나의 요인이라고 정의하였다.

부모 감독은 청소년의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와 같은 문제행동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고정자, 2003).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모 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ehrman, Keith와 Reimers(1987)는 부모가 자녀의 외출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자녀의 감정이나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에 Baumrind(1991)는 부모의 관리감독이나 권위의 사용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그러나 Kagitcibasi(1996)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부모의 관리감독은 자녀들의 학업성적과 자아존중감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서구와 달리 중국, 일본 등의 유교 사회에서는 부

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엄격한 부모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므로 부모의 통제가 자녀의 인지·심리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김은정, 2006, 재인용).

부모 감독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며, 그 연구 결과 또한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부모 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3) 부부 갈등

부모의 부부 갈등은 부모양육태도, 훈육방식, 애착 등을 통해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을 저해한다(Davis & Cummings, 1994).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부모의 부부 갈등은 자녀의 우울, 불안, 비행, 반사회적 행동 등 정서·행동적 문제와 낮은 사회적 능력 및 학업성취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애경, 2003).

부부 갈등을 부모에 의해 보고된 갈등보다는 부모간 갈등에 대한 자녀의 주관적인 지각과 해석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Grych & Fincham, 1990; Harold & Conger, 1997), 부부 갈등은 자녀의 인지적 해석과 평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이다(Grych, & Fincham, 1990).

이와 같이 부모 간의 갈등은 자녀에게 커다란 스트레스이며 정서적 위협(정은희·이미숙, 2004)이 되고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학업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갈등에 비해 자녀가 자주 접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더 강력한 모델이 될 수 있다(이영미·민하영·이윤주, 2005). 이처럼 부부 갈등은 청소년 자녀의 행동장애, 불안, 공격성을 포함한 부적응 문제, 낮은 자아존중감과 같이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홍주영·도현심, 2002).

4) 친구관계의 질

청소년기는 또래관계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높은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친구를 필요로 하며 친구가 많고 기능적일수록 대인관계에 있어서 유능감을 느끼게 되고 만족도가 높아진다(서주현·유안진, 2001). 친구관계는 주로 두 친구의 관계에 국한되어 사용되며 관계의 친밀함이나 호혜성을 내포한다.

최근에는 친구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친구관계의 질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과 정서적 발달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오원정, 1999). 친구관계의 질은 친구관계의 경험을 공유하는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한 이원적인 관계의 양상으로 둘 간의 상호작용의 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Parker & Asher, 1993). 청소년은 성인과 관계에서보다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노출, 교감 및 자기 탐색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하는데, 친밀한 친구가 없으면 중요한 상호작용이 결핍되어 불안감을 주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덜 가치롭게 느끼게 된다(Sullivan, 1953, 오원정, 1999, 재인용). 또한 또래와의 우정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한 발달상의 부정적 측면들을 극복할 수 있다(Vandell & Hembree, 1994).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이 친구관계 형성을 도울 것이라는 또는 만족스러운 친구관계가 자긍심을 높여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자아개념은 친구관계와 관련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Berndt, 1996). 자신의 친구관계를 만족스럽게 평가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며(Berndt, 1992, 1996), 친구관계가 긍정적일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최규현, 1998; 최정미·김미란, 2003).

5) 또래괴롭힘

또래괴롭힘이란 한 학생이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또래괴롭힘 문제는 중학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도현심·권정임·박보경·홍성훈·홍주영·황영은, 2003).

청소년기 또래관계의 기능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또래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은 중요한 지지적 원천 및 사회적 능력을 학습할 장을 잃게 되며, 그 결과 정서적 불안정, 부정적인 성격 그리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가능성

이 크다(Harter, 1993). 또래 괴롭힘 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도현심·김선미, 2006). 또래괴롭힘은 특히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의 심각성이 주목된다.

또래괴롭힘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또래괴롭힘에 대한 연구들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래괴롭힘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Hoover & Hazler, 1992)도 있으나, 많은 연구들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다(Boulton & Underwood, 1992). 또한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의 경우 피해 행동과 자아존중감 간에 보다 더 높은 부적 관련성이 나타났다(양원경·도현심, 1999).

I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부천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남녀 학생 6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문항내용과 질문의 순서 및 응답 방식을 일부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5월에 경기도 부천시 에 소재하는 중학교 중 남녀공학 중학교 3개, 남자중학교 1개, 여자중학교 1개를 선정하여 총 5개 학교에서 전체 5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중 부실 기재된 31부를 제외하고 남학생 279명과 여학생 253명, 총 532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N(%)
성	남자	279(52.4)
	여자	253(47.6)
총형제자매수	외동	60(11.3)
	2명	381(71.6)
	3명	79(14.8)
	4명	10(1.9)
	5명 이상	1(0.2)
	무응답	1(0.2)
출생순위	외동	59(11.1)
	첫째	188(35.3)
	중간	36(6.8)
	막내	247(46.4)
	무응답	2(0.4)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15(2.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71(13.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6(29.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10(20.7)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9(13.0)
	500만원 이상	76(14.3)
	무응답	36(6.6)

2. 측정 도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자신에 대한 존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안수영(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토대로 총 5문항으로 수정한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86로 나타났다.

부모 감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찬란(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 감독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자녀가 외출했을 시 누구와 어디에 있고 언제 돌아오는지를 부모가 알고 있는가, 늦은 귀가 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부모가

자녀의 친한 친구를 알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5문항이다. 부모 감독 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 감독 정도가 높고 자녀에게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 감독에 대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76로 나타났다.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의 갈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찬란(2005)이 사용한 CPIC(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사용하였다. CPIC는 부부 갈등상황에서의 행동과 갈등상황 이후의 행동에 대한 10개의 문항이다.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 갈등에 대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친구관계에 대한 기능적 특성 척도를 15문항으로 재구성한 안수영(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친구관계에 관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점수가 낮을수록 친구관계는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친구관계의 질에 대한 신뢰도 계수

〈표 2〉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요 인	전 체			남			여			t
	N	M	SD	N	M	SD	N	M	SD	
자아 존중감	532	34.66	6.81	279	34.62	6.60	253	34.70	7.06	-.14

인 Cronbach's α 는 .92으로 나타났다.

또래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 양원경과 도현심(1999)의 또래괴롭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또래평가, 교사평가, 자기보고에 의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 평가 7문항을 사용하였다. 또래괴롭힘에 관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인지하는 또래괴롭힘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래괴롭힘에 대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91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과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

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요인과 또래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차이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평균 34.62점, 여자 청소년은 평균 34.70점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해 본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에 차이가 없게 나타난 본

〈표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자아존중감					
	전체		남		여	
	B	β	B	β	B	β
부모와의 관계	.41	.27***	.40	.27***	.43	.28***
부모 감독	.13	.08	.09	.06	.20	.12
부부갈등	-.07	-.08	-.08	-.09	-.04	-.05
친구관계의 질	.12	.18***	.09	.14*	.19	.24***
또래괴롭힘	-.32	-.24***	-.35	-.29***	-.27	-.19***
상수	24.25		27.77		17.18	
R ²	.31		.31		.33	
F	43.31***		22.90***		21.73***	

*p < .05 ***p < .001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선행 연구 결과(국길숙, 이미숙, 2003; 김옥숙, 2001; 김은주, 2002; 이희자, 김경원, 2000)와 일치한다.

2.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 요인의 영향력

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족요인과 또래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다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가족요인과 또래요인 간 그리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가족요인과 또래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중다선형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가족요인과 또래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의 질, 또래괴롭힘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31$ 이다.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beta=.27, p<.001$), 그 다음으로는 또래괴롭힘($\beta=-.24, p<.001$), 친구관계의 질($\beta=.18, p<.0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또래괴롭힘 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친구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의 질, 또래괴롭힘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31$ 이다. 또래괴롭힘이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beta=-.29, p<.001$), 그 다음으로는 부모와의 관계($\beta=.27, p<.001$), 친구관계의 질($\beta=.14, p<.05$)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은 또래괴롭힘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친구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의 질, 또래괴롭힘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33$ 이다. 부모와의 관계가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beta=.27, p<.001$), 그 다음으로는 친구관계의 질($\beta=.24, p<.001$), 또

래괴롭힘($\beta=-.19, p<.001$)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친구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또래괴롭힘 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전반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또래괴롭힘 수준이 낮을수록, 친구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또래괴롭힘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친구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았다. 그리고 여자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친구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또래괴롭힘 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래괴롭힘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가족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 부모 감독, 부부갈등, 또래요인으로 친구관계의 질, 또래괴롭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부천시에서 5개 중학교 2학년 5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부실 기재된 31부를 제외하고 남학생 279명, 여학생 253명, 총 532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래괴롭힘,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의 질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의 질, 또래괴롭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은 또래 집단의 소속 여부를 중시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행동으로 표출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또래괴롭힘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은 남자 청소년들의 중요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게 해 준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은 또래괴롭힘의 경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또래 집단에서의 지위에 따라 자신에 대한 유능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래괴롭힘이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자 청소년은 부모에게 자기 노출을 많이 하며, 남자 청소년보다 정서적 친밀감을 중요하게 여겨 이를 통해 부모와의 친밀성을 유지한다(고정자, 2003). 따라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와의 관계 요인의 영향력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자 청소년은 정서적 친밀감을 중요시 하고 남자 청소년에 비해 소수의 친밀한 친구 관계를 선호한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에서 친구관계의 질이 또래괴롭힘보다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남녀 청소년 모두 가족요인 중 부모와의 관계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킨다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또래요인인 친구관계의 질과 또래괴롭힘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또래괴롭힘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

와 학교 모두 청소년이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의 영향력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또래괴롭힘이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또래괴롭힘보다는 친구관계의 질이 자아존중감을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 요인은 남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청소년을 지도하거나 자아존중감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시 이러한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친구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남자 청소년의 경우 또래괴롭힘을 예방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강조한다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가족요인과 또래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관심과 노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중학교 2학년으로 제한되었고 지역이 경기도 부천시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초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는 데 있어 가족요인과 또래요인을 함께 살펴봄으로서 가정과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기정 · 정은미(2003). 그룹홈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자기성장 집단 상담 프로그램효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1), 172-187.
- 강석기(2003). 청소년의 태도가 자아존중감 및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0(3), 155-180.
- 강승규(1994). **나를 존중하는 삶**. 서울: 학지사
- 고정자(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121-143.
- 국길숙 · 이미숙(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논집**, 23(1), 89-107.
- 김애경(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51-372.
- 김옥숙(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 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06). 초기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가정 내 사회자본의 역할과 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8(3), 33-61.
- 김은주(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례(1992). 자아존중감에 따른 통제소재와 학업성취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2002).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친구지지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9), 47-61.
- 김희화 · 김경연(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5), 15-24.
- 남정홍(2001).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선(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자아상태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도현심 · 김선미(2006). 남녀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변인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117-126.
- 도현심 · 권정임 · 박보경 · 홍성흔 · 홍주영 · 황영은(2003). 또래 괴롭힘 피해아의 특성에 기초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14(4), 103-121.
- 박영림 · 최혜림(200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모 애착, 부부갈등 지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741-755.
- 서주현 · 유안진(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친구관계의 특성. **아동학회지**, 22(4), 149-166.
- 서찬란(2005). 가족환경요인 및 개인심리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수영(2007).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원경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223-238.
- 양종국 · 김충기(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01-121.
- 오원정(1999). 친구관계의 질 및 친구 관계망과 아동의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혜(1992). 자아존중감, 성역할 정체감, 진로의식 성숙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병희(1996). 가정환경이 자아개념과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미리(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63-293.
- 이영미 · 민하영 · 이윤주(2005).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53-62.
- 이혜숙(199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자 · 김경원(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9(3), 283-295.

- 정은희 · 이미숙(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15-126.
-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최규련(1998).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120-142.
- 최미경 · 도현심(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애착 및 우정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21(3), 85-105.
- 최은영 · 최인명(2002).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1), 63-72.
- 최정미 · 김미란(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73-394.
- 홍성흔 · 도현심(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2), 145-157.
- 홍주영 · 도현심(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25-136.
- 현희순 · 김양순(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제주도 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20(1), 249-262.
- Berndt, T. J. (1992). Obtaining support from friend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D. Belle(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189-212). New York: Wiley.
- Berndt, T. J. (1996). Exploring the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In W. M. Bukowski, A. F. Netcomb, & W. W. Hartup(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346-36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lton, M. J., & Underwood, K.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opersmith, S. (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2nd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Demo, D. H., Small, S. A., & Savin-Williams, R. C. (1987).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05-715.
- Fehrman, P. G., Keith, T., & Reimers, T. (1987). Home influence on school learning: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high school grad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0, 330-337.
- Gecas, V. (1972). Parental behavior and contextual variations in adolescent self-esteem, *Sociometry*, 35(2), 332-345.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Harold, G. T. & Conger, R. D. (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The role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8, 333-350.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93). Cause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 F. Baumeister(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New York: Plenum Press.
- Hoover, J. H., Oliver, R., & Hazler, R. J. (1992). Bullying: Perceptions of adolescent victims in the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3, 5-16.
- Kagitcibasi, C. (1996). *Family and Human Development Across Culture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Openshaw, D. K. Thomas, D. L., & Rollins, B. C. (1983). Socialization and adolescent self-esteem: Symbolic interaction and social learning explanations. *Adolescence*, 18, 317-329.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ce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Thomas, J. B. (1972). *Self-Concept in Psychology and Education*. A Review of Research, London: NFFR Publishing Co.

Vandell, D.L., & Hembree, S.E. (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0, 461-477.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고, 가족요인과 또래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부모 감독, 부부갈등, 친구관계의 질, 또래괴롭힘의 척도를 구성하여, 경기도 부천 시내 5개의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 5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532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은 편이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가족요인과 또래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또래괴롭힘,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의 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의 질, 또래괴롭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